

【논 문】

고지도를 통해서 본 15~17세기의 변경지대 - 압록강, 두만강 변을 중심으로 -

남 의 현*

차례

1. 序論
2. 15~17세기 압록강
3. 15~17세기 여진지역
4. 15~17세기 4郡·6鎭
5. 요동변장과 유조변
6. 結論

국문초록

고지도들은 역사연구에 매우 유용한 보조 자료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역사적인 배경지식이 없다면 고지도를 전문적으로 해석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성과를 이용하여 고지도를 이해해 보고자 하였다. 한국의 고지도에는 15~17세기 변경지역에 해당하는 압록강과 두만강 유역 그리고 여진지역이 비교적 상세하게 그려져 있고, 이 지역의 물길, 산세, 군사시설 그리고 여진지역까지도 상세하게 그린 지도들도 상당수 있다. 이러한 지도들은 현재 한국사의 과제인 한국사와 변경, 한국사와 북방사를 연결시키려는 연구방향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필자는 우선 책문과 연산관의 관계에 주목해 보았다. 1480년대 이전 명나라로 들어가는 책문이 설치된 지역은 연산관이었으며, 1480이후에는 봉황성이었다. 이 두 곳은 책문이 설치된 지역이자 사행로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조선에서 보자면 매우 역사적으로 중요한 곳이다. 이 때문에 고지도에는

* 강원대학교 사학과 교수

연산관이라는 지명이 매우 빈번하게 기록되는 모습을 보인다. 나아가 국경 문제와 관련하여 고지도에 조선과 명의 국경선을 표시한 지도는 나타나고 있지 않는데 이것은 전통시대 국경지대의 개념으로 국경이 설정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1480년대 이전에는 연산관~압록강, 1480년대 이후 봉황산~압록강 지역은 각각 양국의 국경중립지대로 표시되어야 한다.

두 번째는 고지도에 압록강 변의 섬들이 비교적 상세하게 표시되어 있음을 통해 당시 조선이 압록강 변의 도서들을 관할하고 있었음을 살펴보았다. 또한 여진지역을 상세하게 그린 고지도를 살펴보면 압록강과 두만강 건너편 여진지역을 상세하게 그린 지도들이 있는데 청 건국 후에도 청나라의 강역이 아니라 단순한 아인지역으로 표시하였다. 이것은 조선의 군대가 수시로 강을 건너 여진을 수차례 정벌하기도 하고 그들의 침입을 저지시키기 위해 군사용 목책을 수시로 설치했던 배경과 청대 봉금지역이 명확하게 청의 강역 속에 포함되지 않았던 인식이 지도에 반영된 것으로 이해하였다.

4군과 6진 지역이 고지도에 상세하게 표시되고 있는데, 꾀과 靉 대안 지역에 여진인들이 촌락을 이루며 인구를 증가시키고 변경을 위협하고 있었다는 사료를 통해 이 지역의 특징을 이해해 보고자 하였다. 특히 여진사회는 14세기부터 농업사회로 진입하면서 비옥한 토지를 찾아 이동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이동은 자연스럽게 조선의 변경 중 살기 좋은 곳으로 밀려올 수밖에 없었다. 4군과 6진 지역의 형성은 그와 같은 시대적 배경과도 관련이 있다고 이해하였다.

마지막으로 청대 유조변을 그린 지도들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것은 당시 요동변장을 기초로 성립된 유조변의 노변과 신변이 역사적으로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고지도에 표시되었다. 이것은 여러 가지로 접근할 수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유조변이 압록강으로 연결되지 않은 것에 초점을 두고 명청대 조선과의 국경선이 압록강이 될 수 없다는 것으로 정리해 보았다.

주제어 : 고지도, 압록강, 두만강, 연산관, 국경, 변경, 유조변, 책문.

1. 序論

15~17세기 요동은 조선에게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지역이었다. 또한 수많은 여진족이 부족단위로 생활하던 지역이었다. 여진족들은 조선과 명을

상대로 交易, 越境, 農業 등을 통해 그들 경제력을 향상시키려고 노력하였으며 부족할 경우 빈번한 침략과 약탈을 통해 그들이 필요로 하는 재화와 인축을 확보해나가며 그들 사회를 성장시켰다. 이러한 결과 여진족은 후기로 갈수록 생산력을 높이고 교역량을 늘려 농구와 철기를 수입하는 등 그들의 경제력과 군사력을 강화시켜 나갔으며 결국 후금, 나아가 청제국을 건설할 수 있었다. 이들이 적은 인구로 국가를 세울 수 있었던 원인에 관해서는 지금까지도 수많은 학자들의 연구과제로 남아있다.

고지도에 여진지역이 표시되는 것은 그들 지역을 표시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들이 변경으로 몰려들고 그들의 촌락이 형성되는 것 등은 그들 사회의 변화 특히 경제적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고지도 자체에는 여진족의 경제적 발전이 표시될 수가 없지만 사료와 고지도를 병행해서 살펴본다면 한결 지도를 이해하기 쉬울 것이다. 여진은 명 초기에는 주로 수렵과 채집을 중심으로 경제생활을 유지하고 있었다.

여진지역은 지리적 환경이 매우 다양하였는데, 이들 지역에는 산과 강이 널리 분포하여 조선과 명에 필요로 하던 산삼, 인삼, 모피 등 고가의 1차 생산물을 생산해내고 있었다. 이러한 특산물들은 조선과 명을 상대로 교역시장 곧 마시를 만들기에 충분했으며 마시는 여진인들이 필요로 하는 생활필수품 등을 제공받을 수 있는 최고의 통로가 되었다.

여진은 마시를 통해 생활필수품을 제공받으며 농업사회로 진입하고 조선과 명에 필적할만한 생산력을 축적하고자 하였다. 그들은 이를 위해 생활필수품 이외에 農具, 耕牛, 철 등을 가급적 많이 수입하고자 했으며 그만큼 많은 양의 특산물을 생산해서 마시에서 교환해야 했다. 그리고 마시에서 교역금지가 된 품목들, 즉 인력, 철 등은 약탈이나 밀무역을 통해 지속적으로 확보하였다.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사료에 나오는 수많은 여진인의 약탈은 단순한 약탈이 아니라 그들 사회를 풍요롭게 하기 위한 불가피한 경제활동의 한 분야로 이해할 수도 있을 것이다.

농경민족에 비해 미약한 경제 단계의 여진인들이 훗날 청제국을 건립하

리라고 믿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그들은 단순한 변경의 골칫거리였을 뿐이었다. 그러나 최근 여진경제를 연구한 성과물 특히 그들의 경제적 구조를 연구한 결과물들은 그들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에 주목하고 있다. 그리고 그들의 경제구조는 일종의 다원적인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연구되고 있으며, 주변국 곧 명·조선과의 지속적인 접촉과 교역으로 인한 생산력의 확보과정에 주목하고 있다.¹⁾

여진사회의 경제단위는 수렵, 어렵, 채집, 농업, 무역, 약탈 등 다양한 단위로 구성되어 있다. 여진인들은 자신들이 생산해 낸 토산물들 산삼, 모피, 어류 등 다양한 특산물은 주변국과 마시를 개설할 수 있는 최고의 생산물이었다. 여진족은 교역시장을 통해 농구와 기술, 철 등을 수입해 농업과 수공업, 그리고 상업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었다.

이러한 여진 사회의 변화를 고지도를 통해서 직접 읽을 수는 없다. 하지만 고지도와 기존의 연구성과들, 그리고 사료를 같이 비교분석하면 여진지역의 지형과 촌락, 조선의 군사 정벌 등 여진 및 그들과 관련된 변화를 다각도로 추론하는 것은 가능하다. 본 연구는 지도를 전문적으로 분석한 논문은 아니다. 또한 모든 지도를 분석한 논문도 아니다. 다만 필자가 가지고 있는 국내에서 출판된 지도책을 살펴본 중 상당수의 지도가 압록강과 두만강을 표현하고 있으며, 그 시대의 배경지식을 모르면 지도를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었다. 이러한 것에 착안하여 기존의 연구성과를 이용하여 좀 더 지도를 재미있게 이해하고자 하는 시론적 차원에서 본 글을 작성하였음을 밝혀 둔다. 그리고 그 대상으로서 국내에서 출판된 조선시대 고지도를 주로 활용하였으며 그 지도를 설명하기 위해 기존의 연구성과물을 이용하여 지도를 설명하는 자료로 삼았다. 그리고 그 대상지역은 주로 압록강과 두만강 지역을 중심으로 하였다.

현재 한국과 중국은 소리없는 역사 전쟁을 벌이고 있다. 2002년 시작된 동북공정 과제들 역시 상당수 국경과 변경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압록

1) 樂凡, 1999, 『一種文化邊緣地帶的特有經濟類型剖析』東北師範大學出版社.

강과 두만강을 명청시대 한반도와 국경선으로 보고 있는 중국의 주장은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고지도에는 조선과 명, 조선과 청의 국경선을 명확하게 표시한 지도는 찾아볼 수 없었다. 이것은 근세 조선과 명 그리고 청의 국경선은 중국의 입장을 넘어 새롭게 인식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중국의 역사왜곡의 배경 뒤에는 변경의 안정 이외에 주변국과의 국경 및 변경문제를 종합적으로 해결하려는 목적이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자면 앞으로 한중간의 국경문제는 더욱 첨예한 대립의 국면으로 갈 수도 있다. 한국 역시 이러한 상황에 미리 대처하기 위해 중국의 변경이론, 국경이론, 변속이론 등에 대응하는 논리를 만들어 내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방법 중의 하나는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는 고지도들을 하나로 묶고 그들을 사료와 함께 이해하며 전통시대의 국경과 변경을 새롭게 이해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이다.

현재 중국은 15~17세기 여진사회를 이해할 때 여진족이 광범위하게 분포하던 명대 길림과 흑룡강 지역을 명의 강역 내지 그 영향력이 강하게 미친 지역이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명대 흑룡강 하류에 설치했다고 주장하는 奴兒干都司가 수많은 여진부족을 관할했고, 그리고 청대 누르하치의 여진부족 통합 과정을 통해 명과 청의 힘이 압록강, 두만강은 물론이고 흑룡강에 미쳤다는 근거를 이론적으로 만들고 흑룡강도 청의 강역이라고 주장한다.²⁾ 그리고 입관 후 만주를 보호하기 위해 유조변을 설치하는 등 전 만주지역이 명청시대의 역사적인 중국의 강역이 되었다고 주장한다.³⁾ 그러나 고지도에는 청제국 성립 이후에도 여진지역은 항상 고지도에 야인지역으로 표현되는 것을 보면 고지도는 우리에게 중국의 주장과는 다른 또 다른 정보를 전해주는 것 같다.

고지도를 통해 만리장성의 동단기점 문제도 나름대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중국은 역사왜곡과는 다르게 보이는 장성보호공정(長城保護工程, 2005~2015)

2) 黑龍江省哲學社會科學院第三室譯, 1976, 『滿洲人在東北—十七世紀』商務印書館.

3) 林榮貴 主編, 2007, 『中國古代疆域史』上·下 4卷本, 黑龍江教育出版社.

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은 오래전부터 만리장성 보호 및 관리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예산을 지원하였고 장성보호공정사업을 시작하였다. 장성보호공정사업은 만리장성을 구성하는 모든 부속물 즉 성벽, 적루, 관성, 영성, 위소, 봉화대 등 모든 성의 부속물을 연구대상으로 하며 역대 장성의 총 길이를 추산하는 작업도 이 사업 속에서 분석되고 있다. 그리고 이미 연구를 통해 대략 장성의 총길이가 5만 km라고 홈페이지에 공개하였다. 문제는 이러한 중국의 장성보호사업이 학술적이고 객관적인 부분이 있기도 하지만 역사와 국부분도 관련되어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이것은 만리장성 동안 기점의 문제와도 관련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고지도를 통해 요동변장과 유조변, 그리고 만리장성을 다른 방식으로 표시하고 있는 고지도들을 소개함으로써 요동변장과 유조변이 만리장성이 될 수 없다는 것도 연구성과와 지도를 이용해 시론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각 장의 논지를 전개해 보고자 하였다. 우선 2장 <15~17세기 압록강>에서는 연산관에 주목해 보고자 하였다. 연산관은 1480년대 봉황성으로 책문이 설치되기 이전 책문이 설치되었던 곳으로 조선 후기의 지도에도 연산관이 표시됨으로써 청 후기까지도 주요한 사행로였음을 지도상에서 그 중요성을 알려주고 있다. 중요한 것은 명대 국경을 표시할 때 1480년대 이전에는 압록강~연산관이 국경완충지대로, 1480년 이후에는 압록강~봉황성 지역이 국경완충지대로 표시되어야 한다는 것이 초점을 두고자 하였다. 나아가 국경완충지대가 형성되어 국경의 개념이 ‘線’의 개념이 아니라 ‘面’ 곧 지역의 개념으로 존재했다. 그 때문에 조선의 군사와 사람들이 압록강변의 섬을 차지하거나 군사들이 강을 건너 여진이 출몰하는 길목에 목책을 설치하는 등의 시설을 설치하는 등 압록강이 실질적인 국경선이 될 수 없음도 언급해 보고자 하였다.

3장 <15~17세기 여진지역>에서는 지도에서 여진지역을 어떻게 표시하고 있으며 고지도에 여진지역을 자세하게 표시한 배경에 초점을 두고 살펴보고자 하였다. 일반적으로 여진지역은 명대에는 여진의 관할지역으로, 청

대에는 봉금지대로 설정되어 명청 두 왕조가 압록강과 두만강을 경계로 만주지역을 지배한 것으로 서술하고 있다. 그러나 지도를 살펴보면 명대 여진지역은 명이 종속된 지역이 아니었으며 여진족의 독립된 공간이었으며 청대에도 청의 강역이 아니라 야인 지역으로 표시함으로써 봉금지대에 성격을 재평가해야 하는 과제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

4장 <15~17세기 4郡 6鎭>에서는 지도를 통해 압록강과 두만강 변에 설치된 4군과 6진 지역에 집중적으로 군진이 설치된 배경을 지도를 통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주로 4군6진과 관련하여 국내에서는 군사적인 관점에서 연구가 되었지만 실제로는 여진세력의 동향이 4군과 6진을 설치하는 중요한 배경이 되었다고 생각된다. 4군과 6진 지역은 여진이 농업 등을 시작하면서 비옥한 지역을 찾아다녔고 그들이 찾아 온 지역이 압록강변 4군과 두만강 변의 6진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곧 4군과 6진의 설치의 여진의 농업 사회로의 진입과 정착, 그리고 인구의 증가와 약탈 등 여진인들의 움직임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5장 <요동변장과 유조변>에서는 고지도를 통해 요동변장과 유조변을 비교하여 그 공통점과 차이점을 정리해 보고 두 경우 모두 만리장성이 될 수 없음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유조변 내 여러 곳에 초소 곧 카룬(卡倫)을 설치했지만 이러한 카룬은 주로 특산물 채취 등 불법 수렵과 채취를 감시하는 위한 목적으로 설치한 것으로 카룬 설치가 곧 영토적 선점이라는 견해는 재고해 보아야 한다. 청 건국 후 카룬이 설치된 봉금지대는 ‘淸’이 아닌 여진히 ‘野人’지대로 표현되고 있으며 이들 야인들이 모두 청의 영향력 하에 들어간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본 연구를 위해서는 많은 지도를 수집하고 분석해야 하지만 우선 국내에서 발간된 한국에는 변경과 관련된 고지도들을 활용하였다. 이러한 고지도들은 압록강과 두만강 유역을 비교적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으며 이 지역의 물길, 산세, 군사시설 그리고 여진지역을 상세하게 그린 지도들도 상당수 있다. 이러한 지도들은 모두 변경지역을 이해하고 사료에 나타나지 않는 여진지역을 파악하며 여진지역과 조선과의 관계,

영토, 국경 등을 연구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

본 연구를 위해서는 많은 지도를 수집하고 분석해야 하지만 우선 국내에서 발간된 『해동지도』(서울대학, 1995), 『Old Maps of Korea』(범우사, 1991), 『한국의 옛지도』(영남대학교 박물관, 1998), 『조선지도』(서울대학교 규장각, 2006), 『조선도』(국립중앙박물관, 2007) 등에 나와 있는 대표적인 몇몇 지도를 참고하여 우선 살펴보았다. 차후 보다 많은 다양한 지도를 치밀하게 분석하고 실록류의 사료내용과 같이 비교하여 변경의 상황을 상세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2. 15~17세기 압록강

1) 連山關과 柵門

명나라는 건국 초기에 高麗의 요동진출을 막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도하였다. 그중의 하나가 鐵嶺衛 설치시도였다. 명의 철령위 설치 시도는 명나라가 압록강으로 진출하려던 시도였다. 결국 요동 북부에서 몽골의 위협이 심각하였고 고려의 요동공벌론을 야기할 수 있었으며, 더구나 압록강변에 衛를 설치할 경우 식량의 공급 등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에 직면해야 했기 때문에 철령위는 최종적으로 요동북부 곧 현재의 鐵嶺市에 설치할 수 밖에 없었다. 압록강변 철령위 설치가 좌절됨으로써 명나라는 압록강을 그들의 군사방어지역에서 제외시켰고 이후 압록강 유역은 명나라의 版圖外 지역이 되었다. 당시 명의 군사력은 대부분 북부에 전력을 집중하고 있었고 요동역참들이 정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요양의 군사가 출동하기 가까우며, 적이 쉽게 넘어올 수 없는 험준한 고개 지역 곧 연산관에 책문을 설치하였다. 연산관은 압록강에서 180여리 떨어진 곳으로 연산관에 도착해야 사신을 맞이하는 명나라 군사를 만나볼 수 있었다.

이처럼 명으로 들어가는 책문이 설치된 연산관에서 압록강에 이르는 1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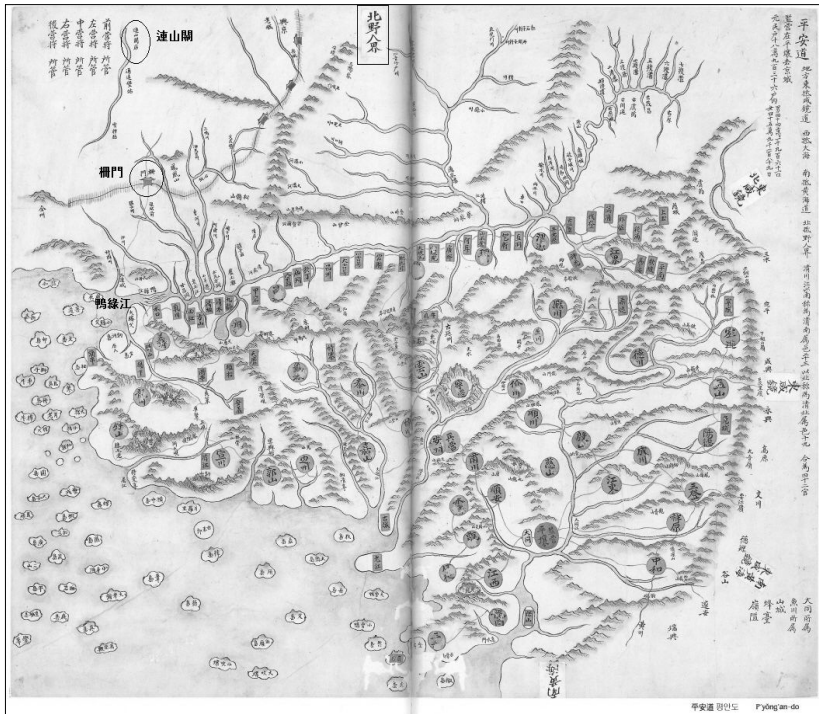
리는 遼東八站, 혹은 東八站으로 불리며 양국의 국경지대로 남아있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과중한 부역과 전쟁을 피해 그리고 새로운 개간지를 찾아오는 사람들의 변경지대가 되었다. 실제로 사료를 살펴보면 범법자들이 처벌을 두려워하여 동팔참 지역으로 넘어가는 경우, 전쟁을 피해 사람들이 연산관을 지나 상당 수 조선으로 건너왔다. 연산관만 넘으면 명과 조선의 군사가 없어서 쉽게 조선의 압록강에 도달하거나 동팔참 지역의 산간지역으로 숨어 들어갈 수 있었다.

연산관을 넘어오는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 조선은 이들을 압록강 변에 거주시키지 않고 下三道의 여러 고을로 옮겨 驛吏와 官奴로 充用하도록 하였다. 이것은 조선이 판단하기에 이들을 압록강 가의 州郡에 두게 되면 뒷날 遼陽 등 처에 풍년이 들고 전쟁이 그치게 되었을 때, 명나라가 인구쇄환을 요구하거나 생활필수품과 농업도구 등이 부족한 여진 등이 조선인을 유인하고 소와 말을 도둑질하여 가지고 강을 건너 달아날 것이라고 확신하였기 때문이다.⁴⁾ 당시 요양을 벗어나 연산관에서 압록강에 이르는 지역이 명나라 衛所의 관할 지역이 아니었다.

명나라가 황제위를 놓고 벌인 내전 靖難의 變 시기 영락제는 변방 군사들의 도움을 필요로 하였으나 전쟁에 지쳐있던 요동의 위소군사들 중 오히려 일부는 전쟁을 피해 연산관을 넘어 조선으로 넘어왔다. 만약 연산관에서 압록강에 이르는 지역에 명나라의 군사가 있었다면 이러한 위소병들이 장애물도 없이 조선으로 대거 귀부해 오는 것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 역시 1480년 이전 명의 영향력이 미치는 지역은 연산관이었고 팔참지역에는 명나라의 영향력이 미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⁵⁾

4) 『朝鮮王朝實錄』太宗 2年 2月 丁巳.

5) 『朝鮮王朝實錄』太宗 2年 4月 戊辰. 이외에도 명나라의 東寧衛千戶 林八刺失里가 3천여 호를 거느리고 요동을 탈출하는 사건이 있었다. 당시 명나라의 河指揮·姚千戶 등이 1천 5백여 명의 군사를 이끌고 추격하다가 모두 林八刺失里에게 죽음을 당하여 길거리에 梟首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들은 명나라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압록강으로 이동하여 조선에 귀부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지도 1) 평안도(해동지도, 서울대학, 1995)

조선시대 평안도를 그린 지도이지만 鳳凰城 책문을 넘어 連山關까지 지도에 포함되어 있다. 연산관은 1480년 이전 책문이 설치되었던 지역이다. 명초 연산관에서 압록강에 이르는 지역은 명의 영향력이 미치는 지역이 아니었다.

연산관에 책문이 설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명으로 입경하는 조선의 사신들은 압록강을 건너서 연산 파절에 도착하기까지 자체 조선의 호위 병력을 대동해야만 했다.⁶⁾ 연산관까지의 이동 중 산적과 여진인 그리고 산짐승 등의 위협에 노출되지 않기 위해 정사와 부사는 모두 微服 차림으로서 군사들 사이에 끼어서 가기도 하고 탄 사람들이 상사인지 부사인지 모르게 위장하는 등 철저한 군사적 경계를 취하며 연산관까지 이동하였던 것이다.⁷⁾ 연산

6) 『朝鮮王朝實錄』世宗 25年 11月 己未.

7) 『朝鮮王朝實錄』世宗 20年 1月 丁未.



(지도 2) 義州府(서울대학, 『해동지도』, 1995)

실제로 조선시대에는 압록강 건너편의 물길과 산의 형세를 자세하게 그린 지도들이 많다. 이것은 명대에는 여진을 정벌하거나 그들을 방어하기위한 목적을 설치하기 위해 수시로 압록강을 건너 왕래하였으며, 또한 산삼 등을 채집하기 위해 월경하는 사람들도 많았다. 여진과는 압록강을 경계로 하였으나 실제로는 조선과 여진의 명확한 경계선은 없었다.

관은 명초 책문이 설치된 지역이자 수많은 고려인들이 살던 지역으로 연산관을 넘으면 요동의 중심 요양이 나타나므로 고려와 조선에게 있어서 연산관은 특별한 지역으로 항상 기억 속에 남는 역사적 장소였다.

2) 압록강을 건너 진행된 조선의 군사활동

조선과 명 사이에는 국경선이 아니라 국경지대가 설정되어 있었다. 양국 사이에 압록강은 현재와 같은 국경선이 될 수 없었다. 이러한 것은 고지도에 여진지역의 형세를 묘사하고 조선의 군사들이 수시로 압록강을 건너간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다. <지도 2>와 <지도 3>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여진지역의 산세와 강들이 자세하게 표시되어 조선은 수시로 여진지역에 들어가 군사적 활동을 할 수 있는 정보를 가지고 있었다. 특히 조선은 수시로 명의 허락없이 압록강을 건너갈 수 있었다. 압록강 건너편은 산세가 험하고 간혹 낮은 곳이 있기는 하나, 도로 사정이 전반적으로 불편하였고 여진의 기병이 넘어오기 어려웠다. 그러나 물이 흐르는 협곡이 많아 여진인들은 이들 지역을 통해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조선은 압록강을 건너 적어 넘어오기 쉬운 산골짜기 험한 곳마다 적당히 군사시설물을 설치하여 방어하였다. 돌을 쌓으면 공사기간이 길고 갑자기 축조하기가 어려우며, 구덩이를 판다면 土城이 부드러워 쉽게 메워지기 때문에 가지가 많은 큰 나무를 베어서 길을 막는 등 신속한 방법을 통해 압록강을 넘어가 길주·경성 등 건너 편 여러 산골짜기에 군사 시설물을 설치하였던 것이다.⁸⁾

이외에도 <지도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압록강 변에는 많은 섬들이 있었는데 이 섬들에는 조선인들이 건너가 농사지으며 살고 있었다. 당시 조정에서는 조선 사람들이 이들 섬에 건너가 살도록 허락하였고 조세의 대상으로 삼기도 하였다. 이에 대해 명나라는 초기에는 거의 관심을 두지 않았다. 예를 들면 호조에서는 평안도 敬差官의 보고를 듣고 의주 於赤島를 세종 4

8) 『朝鮮王朝實錄』世宗 22年 7月 己巳.

년부터 압록강 밖의 땅이라 하고 경작하는 것을 금지하였으나, 이 섬은 강으로 격리되어 명나라 땅이라 할 수 없고 또 의주 성내의 주민들이 모두 이 섬을 경작하여 살고 있으니 그 전대로 백성들이 들어가 경작하는 것을 허락하였다. 또한 조세를 거두도록 하는 등 대부분 압록강 유역의 크고 작은 섬들은 조선인들이 상당수 들어가 거주하고 있었다.⁹⁾ 조선이 일종의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명대 압록강 대안 지역은 청대에도 명과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청대에도 책문은 봉황성에 있었고 압록강이 국경선이 될 수 없었다. 이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越境을 하고 있었으며 청조 역시 산삼 등의 특산물 확보를 위해 봉금지대화 하면서 압록강~봉황성 지역은 공식적인 국경지대로 남아있었다. 심양을 중심으로 행정이 체계화되고 통치가 안정화되었음에도 오히려 압록강변에는 청조가 봉금지책을 취해 양국의 완충지대로 남아 있었다. 강희 25년(1686)에 금주와 봉황성 등 처의 황무지를 개간하기 위해 民丁과 耕牛를 旗丁에게 나누어 준 이후 점차 봉황성 밖으로 경지를 확대해 나갔으나¹⁰⁾ 압록강 유역으로 개간지가 확대되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다. 우선 압록강 유역의 산간지역에는 귀중한 특산물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 중의 하나가 산삼이다. 동4문 외곽 지역에는 크고 작은 산들이 분포해 있었는데 왕청, 감창, 애양, 봉황산 등에는 청조의 내무부가 소유하고 있는 채삼산장과 타생위장이 있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허가된 사람 이외에는 출입을 통제하는 봉금지대를 유지할 필요가 있었다.¹¹⁾ 봉황성과 압록강으로 흘러드는 애하는 압록강과의 거리는 가까웠기 때문에 이 지역으로 인구가 대량으로 흘러들어올 경우 그 충돌은 불가피하였다. 더구나 당시 산삼은 최고의 특산품이었기 때문에 양국의 사람들이 충돌할 경우 외교적인 문제로 확대될 수 있어서 청 정부는 압록강 유역을 이전부터 지속되어온 대로 봉금지대

9) 『朝鮮王朝實錄』世宗 6年 10月 辛未.

10) 『鳳城縣志序』.

11) 『奉天通志』卷107, 田畝志.

로 묶어두며 국경지대로 두는 것이 서로에게 이롭다고 생각하였다.¹²⁾

3. 15~17세기 여진지역

명 태조는 여진문제에 많은 관심이 있었지만 현실적으로는 많은 군사를 여진지역에 파견할 수 없었다. 명초 최대의 문제는 여전히 북변 몽골방어 문제였고 명나라는 몽골에 골몰하느라 동쪽의 여진에 신경 쓸 틈이 없었다.¹³⁾ 고려와 조선은 압록강과 두만강을 접하고 있었고 이 지역에 거주하고 있던 여진부족을 흡수하고 있었다. 조선이 요동을 공벌할 수 있다고 믿었던 명 태조는 요동도사를 통해 여진을 통제하였고 고려(조선)와 여진이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장차 명나라의 요동정책과 상충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했다.¹⁴⁾ 즉 홍무연간 명나라의 요동도사는 遼陽을 중심으로 25衛체제를 갖추어 나가고 있었지만 여전히 불안정한 상태였고, 조선과 전쟁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한 식량과 조선 군대를 상대해 싸울만한 전문적인 군대가 부족했으며, 요동의 전투력도 많이 고갈된 상태였다. 조선에 대해 명 태조는

“조선은 國都에서 압록강에 이르기까지 요충지에 비축하는 식량이 1만석에서 10여 만석에 이르고 동녕부의 여진인을 유인하고 있으며 반드시 음모가 있을 것이다 ... 그러나 요동은 지금 군량이 모자라며 군사들이 굶주리고 있는바 ... 그들(조선)의 20만 대군이 요동으로 쳐들어온다면 어떻게 대응하겠는가”¹⁵⁾

라고 하며 막대한 비용을 들여가며 진행하던 遼王의 궁실공사마저 정지시

12) 金宣旼, 2011, 「擁正 - 嘉靖年間 莽牛哨 事件과 淸 - 朝鮮 國境地帶」, 『中國史研究』제71집.

13) 『朝鮮王朝實錄』太祖 2年 5月 丁卯.

14) 朴成柱, 2002, 「15세기 朝·明간 流民의 發生과 送還」, 『慶州史學』 第21輯, 慶州史學會, 136~146쪽.

15) 『明太祖實錄』卷238, 洪武 28年 4月 辛未.

키고 있던 상황이었다. 이는 당시 명나라가 동부의 여진을 초무할만한 군사력이 없었음을 의미한다.



〈그림 1〉

〈대명여지도〉. 명대 요동변장을 그린 지도로 변장이 압록강으로 연결되지 않고 있다. 실제로 요동변장은 산과 강, 목책 등이 혼합된 방어선으로 산해관과 같은 견고한 벽돌 성으로 축조되지 않았다. 변장 밖 북쪽은 몽골, 동쪽은 여진의 땅이었다. 요동변장은 동쪽 산해관에서 시작하고 있다.

영락연간에 이르러서야 왕가인 등을 조선에 보내 參散·禿魯兀 등 두만강 유역을 중심으로 한 10處의 溪關萬戶 寧馬哈 등을 招諭하겠다고 통보해 왔다.¹⁶⁾ 이에 조선은 金瞻을 명의 사신 王可仁과 함께 京師에 보내 조선의 동북지방은 公嶮嶺으로부터 孔州·吉州·端州·英州·雄州·威州 등의 고

16) 『朝鮮王朝實錄』太宗4年 4月 甲戌.

을이 모두 고려의 땅에 소속되어 있고 여진인과 조선인이 섞여 살고 있고 각각 方言으로 그들이 사는 곳을 이름하여 吉州를 ‘海陽’, 端州를 ‘禿魯兀’, 英州를 ‘參歎’, 雄州를 ‘洪肯’, 威州를 ‘哈蘭’으로 각각 칭하고 있다고 답하였다. 또한 홍무연간 명 태조가 말한 것 즉 ‘鐵嶺 이북·이동·이서는 원래 開原의 관할에 속하였으니, 軍民을 그대로 요동 관할에 소속시키라.’고 한 것을 상기시키며 10처 여진인 지역은 조선의 관할임을 강하게 주장하였다.¹⁷⁾

이처럼 명에게 있어서 여진지역은 통제하고 싶었지만 통제할 수 없는 지역이었다. 명이 여진을 정벌할 때 조선과의 협공을 선호한 것도 자체의 정보와 역량이 부족했던 이유도 있었다. 이처럼 명이 여진지역을 자국의 강역으로 삼는다는 것은 당시의 분위기에서는 불가능하였다. 이 때문에 명대에 여진에 관한 상세한 지도는 명에서는 나올 수 없었으며 명나라의 사료는 여진지역을 자국의 강역으로 삼고 있지 않은 것으로 기록하였다.

4. 15~17세기 4郡·6鎮

1) 4郡 지역

사료를 통해서 보면 여진족들은 4군의 건너편 지역에 들어와 많이 살고 있었다. 15세기 후반 여진족들 특히 건주여진은 상당수 농사를 지으며 압록강 유역과 두만강 유역을 따라 촌락을 유지하고 있었다. 농경사회로 접어들면서 비옥한 토지가 필요하였고 이것은 결국 조선과 명 변경의 농사가 가능한 지역으로 여진인구가 밀려들어 올 수 있음을 의미하였다. 실제로 여진은 명나라 동부변경 부근인 草河 부근이나 蘇子河, 婆猪江, 渾江 그리고 조선의 압록강변, 여연, 무창 부근으로 밀려들어와 집단으로 부락을 이루었다.

17) 『朝鮮王朝實錄』太宗4年 5月 己未.

이러한 상황은 비변사에서 상주한 다음의 사료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전일 평안도 閔延·茂昌에 와서 사는 金主成哈에 대해 그대로 살도록 허락하는 것이 타당한지의 여부를 일찍이 물었더니, 邊將 등이 ‘主成哈이 사는 곳은 四郡의 지역과 거리가 멀고 또 그가 온 지 이미 오래므로 몰아내기가 어렵다.’는 내용으로 馳啓하였습니다. 그래서 변장을 시켜 다시 타이르게 하기를 ‘이미 와서 거주한 주성합 등 6~7집 이외에 만일 동류들을 많이 이끌고 와서 살게 되면 너희들의 집을 불태워버리고 즉시 몰아내어 편안히 살 수 없게 하리라.’는 내용으로 분명하게 약속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동류들을 많이 이끌고 와서 사는 자가 해마다 늘어나 부락을 이루고 멋대로 漁獵을 하고 임의로 농토를 경작하되 조금도 꺼리는 기색이 없으며, 변장이 전일의 약속을 들어 본토로 돌아가도록 아무리 영을 내려도 그들은 도리어 거만한 말을 하고 그 세력이 점점 확장되니 전일 三浦의患을 거울삼을 만합니다.¹⁸⁾

이러한 상황은 16세기가 되자 여진의 인구가 더욱 늘고 농업경제 역시 더욱 발전하는 상황으로 변한다. 조선과 명은 이러한 여진인들이 토지를 침탈하며 변경으로 밀려드는 것을 경계할 수밖에 없었다.¹⁹⁾ 실제로 여진은 거주지를 수시로 옮겨 다녔는데, 부족의 집단이주, 월경, 어렵, 토지침탈, 부락의 형성 등 형태로 변경의 비옥한 토지가 있는 지역으로 몰려들었고 이러한 현상은 그들이 농업사회로 진입한 이상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없었다. 조선의 여연이나 무창 등은 토지가 비교적 비옥한 지역으로 그들의 중요한 관심 지역이 충분히 될 수 있었는데 다음의 사료가 이러한 상황을 잘 설명해 주고 있다.

참찬관 崔世節이 아뢰기를, ...신이 滿浦에 있을 때 閔延·茂昌에 와서 거주하는 野人이 겨우 30여 호였는데 지금은 부락이 점차 번성해진다니, 번성해지면 上土·滿浦 등의 鎭에 장차 변이 있게 될 것입니다. 신의 생각에

18) 『朝鮮王朝實錄』中宗 17年 7月 辛未.

19) 『明神宗實錄』萬曆 42年 4月 丁酉.

는 일찌감치 이들을 驅逐한다면 환란이 작지만 구축하지 않는다면 환란이 커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特進官 尹熙平이 아뢰기를, “(여연과 무창은 : 역지주) 또한 토지가 비옥하고 水源이 좋아서 농사를 지으면 이득이 있고 漁獵을 하면 소득이 있으며, 貂鼠가 많이 나므로, 곧 도로 와 거주할 것은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습니다.”

세절이 아뢰기를, “여연·무창의 새로운 곳에 와서 사는 자는 곧 金朱成 哈인테 이 사람이 와서 살게 된 이후부터 六鎰의 아인들이 4~5戶나 3~4호씩 그곳에 옮겨와 삽니다. 무릇 육진은 아인들로 울타리를 삼는데 육진이 장차 허수해질까 싶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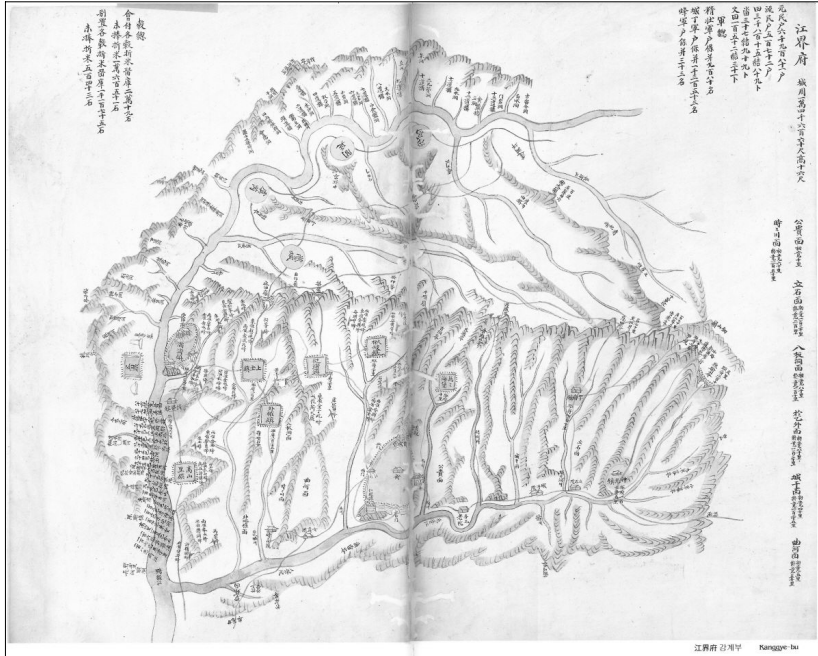
희평이 아뢰기를, “온하위·건주위는 서로 섞여서 사는데, 이번에 만일 경솔하게 쫓아낸다면, 이 두 衛가 서로 화합하여 변방 환란을 일으키게 될까 싶습니다.”²⁰⁾

위의 사료를 분석해 보면 여연과 무창 등은 매우 비옥하고 수렵하기에 적당하며 여진인들이 많이 거주하며 점차 그들의 인구가 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조선은 그들을 축출하는 방법을 통해 변경을 안정시키고 방어력을 강화하고자 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것은 명청대 지도에 4군과 6진 지역에 수많은 초소를 표시하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지도 3> 참조).

평안도 절도사 尹熙平의 보고서를 분석해 보면, ① 軍官 金仁孫 등을 여연 성 밑(城底) 등지에 보내 탐지한 즉, 여진인 金阿·宋可 등이 여연 성 밑에 옮겨와 살며 성 안에는 채소를 심고 성 밖에는 밭을 개간하여 조를 심었으며, ② 이들 농작물이 다 무성하였고 집을 매우 튼튼하게 짓고 사방에는 사방에 木柵을 세우고 또한 동서에 문을 둘 내어 마치 오래된 부락 같은데 무릇 17호나 되었으며, ③ 조선이 위협하더라도 이곳 벼와 곡식이 바야흐로 무성한데 지금 만약 버리고 돌아갈 수 없으며 ④ 각 가호마다 상지를 많이 쌓아놓은 것은 장차 會寧에 사는 사람들 3백여 명이 앞으로 여기에 와서 살

20) 『朝鮮王朝實錄』中宗 17年 3月 甲寅.

려고 준비한 것이었다. ⑤ 강 위 아래 와서 사는 여진인들이 모두 92호에 장정이 무려 4백여 명이 되고 있다. ⑥ 그리고 조선은 장차 江界·咸興·三水·甲山 지경은 여진족의 피해를 받게 될 것임을 염려하고 있었다.²¹⁾



〈그림 2〉 4군지역 강계부(서울대학, 〈해동지도〉, 1995)

명대에 비해 파절과 같은 초소는 설치되어 있지 않으나 강 주위에 군사초소가 많이 설치되어있고 강 건너 산 등이 비교적 자세하게 표시되어 있어 여전히 아인을 경계하고 나아가 越境을 통해 산삼 등을 채집하는 등의 활동이 진행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명대는 여진과 잦은 군사적 충돌이 있었기 때문에 청대 보다 더 많은 군사시설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들은 이미 변경 주위의 비옥한 지역으로 와서 조선인과 비슷한 가옥을 축조해서 농업에 전념하고 있었던 것이다. 압록강 유역으로 온 여진인은 대

21) 『朝鮮王朝實錄』中宗 14年 6月 甲戌.

부분 건주여진이지만 간혹 해서여진과 야인여진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었다. 당연히 이들은 농업사회로 진입하였지만 어렵과 수렵 등도 병행하였다. 여진족이 농사지었던 작물은 강수량이 적어도 잘 재배되는黍나粟, 채소, 대두 등 여러 작물들이 사료에서 확인되고 있다.²²⁾

2) 6진 지역

조선은 6진 지역 중 鏡城·慶源 등에 마시를 개설하였는데 이는 이 지역에 많은 여진인이 살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조선의 입장에서 보면 경성·경원 지방은 조선의 변경으로 군사적인 안정이 필요한 곳이기도 하였다. 마시의 개설 등으로 야인의 출입을 너무 개방하면 그 인구가 증가하여 조선이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몰려들어 변경을 위태롭게 할 수 있고, 이러한 것을 우려하여 마시를 폐쇄하면 야인이 소금과 鐵을 얻지 못하여 혹은 변경에 우환이 생길 수 있었기 때문에 貿易所를 설치하여 互市를 운영하면서 적절히 여진을 회유하는 통제력이 필요하였다. 일종의 채찍과 당근책을 구사할 수밖에 없었다. 대신 무기류는 매매를 엄히 금지한다는 원칙을 지켰다.²³⁾ 하지만 이러한 금령은 여진으로부터 들어오는 고가의 특산품을 구입하려는 욕망과 함께 지켜질 수 없었다. 조정은 咸吉道都節制使 康純에게

“鑰鐵器와 水鐵農器를 野人들과 서로 교역하는 자를 이미 엄하게 금지하도록 하였는데, 요즈음 듣건대, 무식한 무리들이 나라의 법을 무서워하지 않고 몰래 가져가서 매매하는 자가 있다고 하니, 오로지 이것은 법을 소홀히 하여 禁令이 解弛해진 所致이다. 경은 그것을 다시 엄하게 금지시키고 推鞠하여서 아뢰어라.”²⁴⁾

22) 『朝鮮王朝實錄』世祖 12年 8月 乙卯. 成宗 14年 4月 丙戌, 成宗 21年 5月 丁丑 等

23) 『朝鮮王朝實錄』太宗 6年 5月 己亥.

24) 『朝鮮王朝實錄』世祖 9年 8月 甲午.

고 하명하는 것을 보면 당시 밀무역의 통해 상당수의 철기류가 여진지역으로 빠져나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성종연간에도 또한 비슷한 기록이 나타나고 있는데, 鐵物·牛馬·軍器 따위를 매매하는 것은 死刑으로 법이 엄함에도 변방 고을 수령들이 毛物을 사면서 鐵物만을 팔고 있음을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면서 여진인들이 많은 병기를 만들어 내었고 ‘옛날에는 鐵箭이 없어서 모두 骨鏃을 사용했다는데, 지금은 쇠로써 갑옷도 만드는 자까지 있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면 모피와 같은 고가의 여진 토산물이 국내로 들어오고 대신 상당수의 철제가 여진지역으로 넘어가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결국 이것은 감시의 눈을 피해 밀무역 형태로 진행되었고 훗날 여진의 생산력과 군사력을 높여주는 중요한 원인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²⁵⁾

특히 여진의 특산물 중 貂皮는 당시 조선의 지배층들에게 매우 값지고 귀중하였다. 즉 당시 풍속을 보면 服飾에 貂皮 등 고가의 모피를 장식으로 사용하고 있었으며 朝士로서 官階가 4품에 승진되면 반드시 초피의 耳掩을 着用하며, 나이 젊은 부녀들도 모두 貂裘를 입는 등 수요자가 많고 그 가격 또한 고가였다. 결국 이를 구하기 위해 牛馬와 鐵物로써 이를 구입하는 사람이 생기고 결국 野人들의 수입한 철로 화살촉 등의 무기를 생산하는 상황으로 발전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것은 여진의 수렵경제가 그들의 군사력을 강화시키는 중요한 배경이 되고 있음을 설명해 주고 있다고 하겠다.²⁶⁾

요약하면 여진의 토산물들은 조선과 명에게는 매우 중요한 고가의 상품이 될 수 있었고 여진은 이들을 이용해 교역을 확대해 나가며 여진사회를 발전시킬 수 있는 농구와 무기류 등 철을 확보해 나갔다.

사료를 검색해 보면 약탈대상은 사람, 소, 말, 재산 등 모두 여진경제에 필요한 것들이었다. 약탈해간 인구는 여진사회의 경제활동 즉 농업이나 수렵, 또는 군사력에 충당되었으며 재산은 그들 부족이나 부족장의 역량을 강

25) 『朝鮮王朝實錄』成宗 5年 10月 庚戌.

26) 『朝鮮王朝實錄』成宗 6年 7月 辛酉.

화하는 중요한 재산이 되었다. 인구의 약탈은 몽골세력에 의해서도 이루어졌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요동 북부에는 올랑합 3衛라는 몽골세력이 있었는데 이들은 동서몽골 또는 여진과 연합하여 작게는 1천여 명 많게는 6천여의 군사력으로 개원, 무순, 심양, 요양 등을 공략하기도 하였다.²⁷⁾ 이들은 처음에는 올랑합 3衛의 형태로 명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지만 명나라가 그들의 경제적 요건을 충족시켜줄 수 없었기 때문에 약탈이라는 생존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 동부의 여진 역시 명나라 요동변장의 동부방어선 내지 조선의 변경을 수시로 위협하여 수백 명의 인구를 약탈하거나 죽이는 경우 등 그 수는 이루 헤아릴 수 없는데 이것은 약탈경제라는 시각에서 접근해 분석할 필요가 있다.²⁸⁾



〈그림 3〉 6鎭 지역(『조선도』참조)

청대에 그린 6鎭 지역이지만 여전히 상당히 많은 봉수대들이 산을 중심으로 설치된 것을 알 수 있다. 명대와 마찬가지로 청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27) 『明憲宗實錄』成化 2年 7月 丁丑, 成化 9年 夏4月 戊寅.

28) 『明英宗實錄』正統 元年 6月 庚寅 : 正統 7年 10月 癸丑.

조선은 여진과 압록강과 두만강을 경계로 여진과 접하고 있어서 긴 경계선을 유지해야만 했다. 주로 조선의 변경은 강변에 위치한 경성, 갑산, 단천, 은성, 의주, 회령, 무산 등인데 이들 지역은 여진과 접하고 있어 항상 인구와 재산의 약탈지가 되었다. 조선 세조 초기 8여 년 동안 거의 20여 차례에 이르는 여진족의 침입으로 인한 인구와 재산의 약탈이 있었는데, 세조 9년에는 182명이 여진의 공격으로 그들에게 죽거나 포로가 되고 소 155여 마리가 잡혀가는 경우도 있었다.²⁹⁾

침입한 여진인은 작을 때는 10명 이하, 수십 명, 많을 때는 수백 명에서 수천 명이 무리를 이루어 조직적으로 침략함으로써 약탈과 방화, 그리고 살인을 행했다.³⁰⁾ 이러한 여진의 약탈은 그 규모 그리고 여진족의 종류에 관계없이 모두 경제적 약탈의 성격이 강하다는 공통점이 있다. 약탈은 그들이 필요로 하는 재물과 인력을 확보하는 가장 빠른 경제회복방법 중의 하나였던 것이다.

건주 세력은 두만강 유역 會寧과 부근 阿木河를 중심으로 거주하고 있었다. 두만강유역의 會寧지역은 농경이 가능한 지역으로 조선과의 왕래를 통해 耕牛와 생산기술 등을 손쉽게 수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었기 때문에 여진인들이 많이 거주하던 지역이었다.

조선에서는 5진의 부근에 여진인들이 사는 것을 허락하고 이들을 藩籬化 시켰는데, 會寧 성저에는 주로 알타리족이, 慶興 성저에는 骨看兀狄哈이, 鐘城·穩城·慶源의 城底에는 울랑합이 居住하였다. 이들은 ‘城底野人’으로서 성내의 조선인과 수시로 교역하였다. 이러한 여진 지역의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조선에서 그런 고지도에는 여진지역의 지형, 지세, 그들의 부락 등이 필요하였고 결국에는 항상 고지도에 많이 표시되고 있다.

29) 『朝鮮王朝實錄』世祖 7年 9月 乙丑.

30) 『朝鮮王朝實錄』成宗 11年 8月 乙丑.

5. 요동변장과 유조변

고지도 특징 중의 하나는 명대 요동변장과 이에 기초해서 형성된 유조변이 상세하게 그려진 지도들이 많이 남아있다는 것이다.<지도 7> 참조³¹⁾ 요동변장을 이용하여 형성된 柳條邊은 柳條關, 柳城, 柳邊, 條子邊, 邊牆 등으로도 불린다.³²⁾ 柳條邊의 수축은 문헌을 살펴보면 ‘버드나무를 꺾어 울타리로 만들다(折柳樊之)’, ‘울타리를 끼워 넣어 경계로 삼다(插籬爲邊)’, ‘버드나무를 끼워 넣어 경계로 삼다(插柳爲界)’, ‘가시나무를 엮다(編荊爲之)’, ‘끈을 연결해 목책을 늘어놓다(結繩列柵)’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³³⁾ 이러한 柳條邊은 ‘盛京邊牆’으로 나타나기도 한다.³⁴⁾ 『奉天通志』 역시 “淸因明障塞故址, 植柳于牆之外, 名曰柳邊, 柳條邊”으로 기록하면서 ‘展邊’ 즉 변경으로 柳條邊 울타리를 확대해 나갔다고 기록하고 있다.³⁵⁾ 이와 같은 기록으로 본다면 청대 老邊은 명대 遼東邊牆을 그대로 이어받은 후 확대되어 나갔음을 알 수 있고 단지 차이점이 있다면 버드나무를 심었다는 차이가 있다.³⁶⁾ 청대 유조변은 명대 요동변장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으며 그 형태도 큰 차이가 없다.

중요한 것은 고지도들은 요동변장이나 유조변 모두 압록강으로 연결시키지 않고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14~17세기 압록강에서 봉황성에 이

31) 최근 유조변을 연구한 연구논문으로는 南義鉉의 「清代 柳條邊의 形成과 性格」(2012, 『明清史研究』 제38집, 명청사학회)가 있다. 유조변의 성격과 봉금지대는 밀접한 관련이 있지만 봉금지대에 대한 정의 영향력을 파악하는 문제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이하 유조변 관련내용은 이 연구성과를 활용했음을 밝힌다.

32) 중국은 이러한 柳條邊을 국경선이 아니라 행정구역의 분계선으로 이해하고 있다. 당시 柳條邊 북쪽은 몽골 지역으로, 중국의 입장은 내지를 보호하고 민족격리 정책을 실시하여 각 부족이 경계를 넘거나 거주하는 것을 금지시켰으며 만주족 통치자의 변외 토지 및 산림자원의 독점적인 권익도 함께 보호하는 격리선으로 이해하고 있다. 곧 국경선이 아니라 단순히 농업과 유목이라는 경제적 다양성을 구분하는 경계선으로 이해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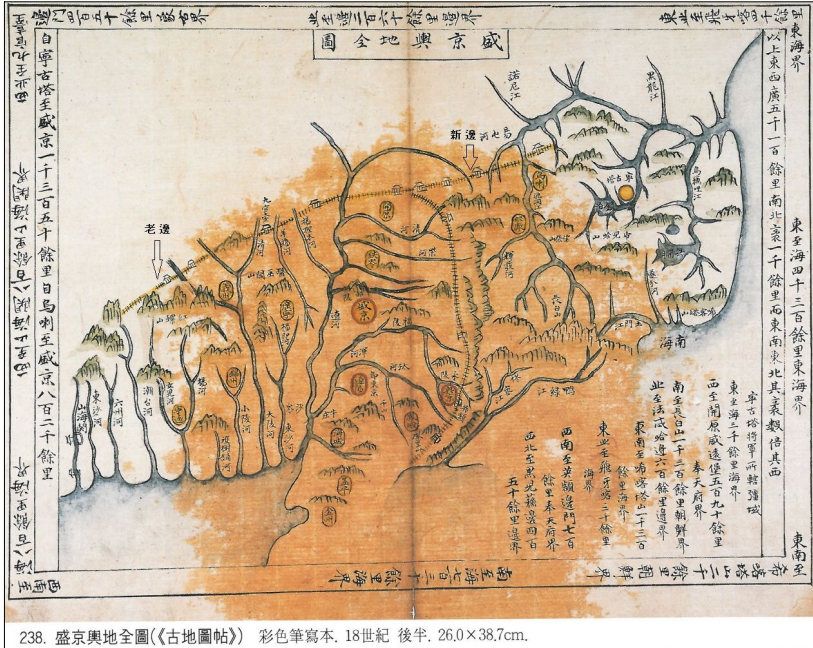
33) 楊賓, 『柳邊紀略』卷1.

34) 柳條邊을 盛京邊牆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은 당연히 명대 遼東邊牆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이다.

35) 『奉天通志』卷78, 山川 12.

36) 이처럼 柳條邊 중 遼東邊牆에 해당하는 노변은 명대의 흔적을 그대로 이용했기 때문에 柳條邊이 수축되는 순차연간 노변을 세롭게 축조했다는 기록은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르는 지역은 국경중립지대이거나 봉금지대로 설정되어 압록강이 국경선이 될 수 없는 것이다. 만약 압록강이 국경선이라면 요동변장이나 유조변은 당연히 압록강을 따라 연결되어야 할 것이다.



238. 盛京輿地全圖(《古地圖帖》) 彩色筆寫本, 18世紀 後半, 26.0×38.7cm.

〈그림 4〉 盛京輿地全圖

청대 유조변의 모습이 잘 나타나 있다. 명대 요동변장의 노선은 노변이며, 요동북부에서 길림으로 향하는 것은 신변이라 부른다. 유조변이 봉황성으로 연결되다가 압록강으로 연결되지 않고 압록강 대안 지역과 원충지대를 형성하며 바다로 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요동변장과 유조변을 둘러싸고 중국은 주변국과 견해 차이를 보이고 있다. 먼저 요동변장이 만리장성인가의 여부이다. 둘째 요동변장이 만리장성이라면 이것을 이어받은 유조변 역시 만리장성인가의 문제 역시 쟁점이 될 수 있다. 셋째, 유조변이 만리장성이라면 유조변은 몽고와 러시아와의 국경

선인가의 문제도 역시 영토를 둘러싼 쟁점이 될 수 있다. 현재 柳條邊의 성격을 둘러싸고 국가 간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는데 단순한 지역 사이의 경계선이라는 중국의 주장과, 국경선이라는 러시아와 의견 대립을 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柳條邊은 두 개의 邊柵 곧 老邊과 新邊으로 구분되는데 老邊은 명대 遼東邊牆을 좀 더 확대시킨 것이며 新邊은 청 건국 이후 다시 설치한 것이다. 이 두 가지가 柳條邊을 기본적으로 구성하고 있는데 柳條邊에 관해 가장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중국의 기록인 『柳邊紀略』 역시 노변에 해당하는 柳條邊(遼陽과 瀋陽을 중심으로 하는 현재의 遼寧省 지역을 포괄하는 선)은 版圖內 지역으로 언급하고 있지만, 新邊에 해당하는 柳條邊 안쪽은 無版圖 지역으로 서술하고 있다. 무엇 때문에 양반은 봉금지대를 청조의 무판도 지역으로 인식했는가의 문제도 중요하다.

또한 柳條邊의 선이 미치지 않는 黑龍江과 우수리강 유역은 청의 영향력이 미치고 있지 않다는 의미로도 파악되어 柳條邊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을 가지고 있다. 실제로 중국은 柳條邊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우수리강과 흑룡강 유역도 누르하치가 17세기 원정을 통해 모두 그 곳의 종족들을 청건국의 주인인 滿洲人으로 편입한 것으로 주장하며 그 지역과 민족 모두를 청의 강역 속에 넣고 있다.

반면 러시아는 이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함으로써 흑룡강 유역을 비롯한 봉금지대 상당부분의 토지와 여진부족이 청조의 영향력 밖에 있었다고 주장함으로써 중국과 첨예한 논쟁을 벌이고 있다. 이러한 국가 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柳條邊의 형성과정과 그 성격을 밝히는 것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명이 망하고 청이 건국되자 요동의 만주족은 중원을 통치하기 위해 모두 입관하였다. 청나라는 입관 이후 순치·강희연간에 요령과 길림 지역에 유조변을 설치하였다. 유조변은 일반적으로 서쪽 산해관 부근에서 시작해서 동쪽 길림성 송화강 변 북쪽 船廠에서 끝이 나며 북으로는 威遠堡에서 출발하여 남쪽 봉황산에 멈추는 것으로 기록되고 있다.³⁷⁾ 유조변은 두 개의 邊



84. 人燕程途圖 (帖「輿地圖」) 彩色寫本, 18世紀 末期, 59.0×79.0cm, Seoul大學校 李章淵 所藏
 Pyeon Jeongdo-do (Yeoju-do) Map of Envoy Routes to Beijing (Atlas of Korea) Manuscript map in color
 End of 18th century, 59.0×79.0cm Kyujanggak Archives, Seoul National University.

〈그림 5〉 입연정도도(서울대학 규장각, 18세기 말)

북경으로 들어가는 사행로를 표시한 지도로, 18세기 후기에 조선은 만리장성과 유조변을 방식으로 표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현대 중국이 명대 요동변장을 만리장성으로 인식하고 그 동단기점을 압록강으로 주장하는 것과는 다르게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柵 곧 老邊과 新邊으로 구분되는데 노변은 명대 요동변장을 좀 더 확대시킨 것이며 신변은 청 건국 이후 다시 설치한 것이다. 이 두 노선이 유조변을 기본적으로 구성하고 있는데 유조변에 관해 가장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중국의 기록인 『柳邊紀略』 역시 노변에 해당하는 유조변(요양과 심양을 중심으로 하는 현재의 요령성 지역)은 版圖內 지역으로 언급하고 있지만, 신변에 해당하는 유조변 안쪽은 無版圖 지역으로 서술하고 있다. 즉 청대 봉금지대를 무관도로 청대의 사료가 서술하고 있어 그 성격을 규명할 필요성이 있다.

청대 유조변의 상당 부분은 명대 요동변장에 기초하고 있는데, 요동변장

www.kci.go.kr

37) 楊賓, 『柳邊紀略』卷1.

은 이미 1980년에 학술적으로 장성으로 불렸다. 그렇다면 이 명대 요동변장을 이어 받아 형성된 유조변은 만리장성의 범주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런 의미에서 유조변이 만리장성이 될 수 있는가의 문제는 앞으로 논의될 것이며 만리장성의 길이를 늘이는 수단이 충분히 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유조변의 성격에 대해 전반적으로 분석해 보는 것은 중국의 장성 연장론에 대응한다는 차원에서 나름대로 의미가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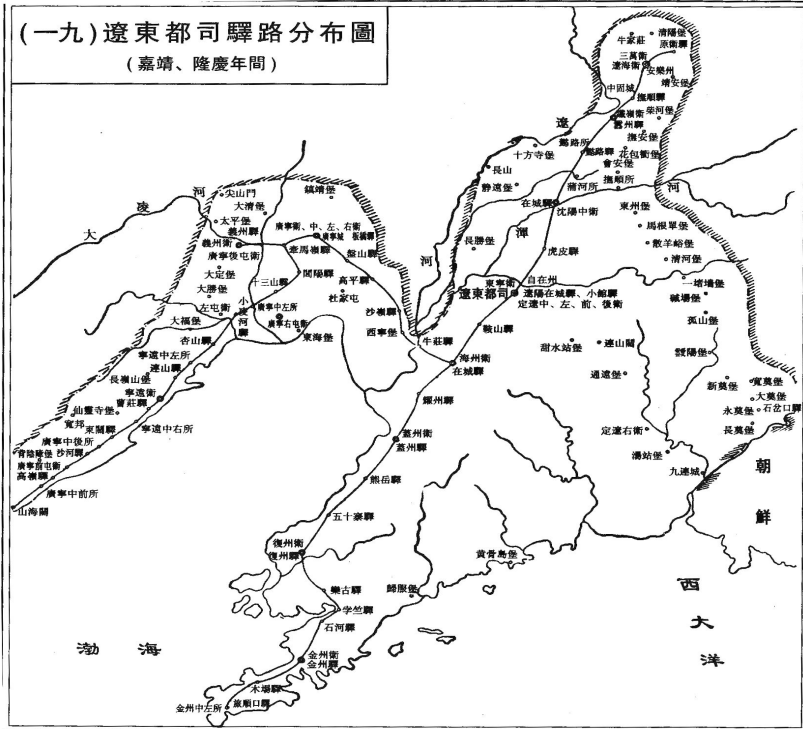
만약에 유조변이 만리장성이라면 그 아래쪽 지역은 당연히 청조의 판도가 되었을 것이다. 역사적으로 만리장성은 내지와 외지를 구분하는 국경선의 역할을 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것처럼 장성수축의 역사는 명나라의 멸망과 함께 끝이 났다. 청나라는 건국 후 중원을 통치하기 위해 여진부족을 거느리고 대부분 산해관을 넘어 북경으로 들어갔다.

이제 그들이 태어나고 국가를 처음 세웠던 만주지역은 인구가 부족한 무주공산 지역이 되었다. 하지만 이 지역은 그들이 발흥한 지역이자 수많은 특산물이 나는 경제적인 보고였다. 이 지역을 보호하고 만주족의 경제적 이권을 독점하기 위해서는 결국 외부인들의 출입을 금지하는 조치가 우선적으로 필요하였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는 높은 성벽은 필요가 없었다. 높은 성벽을 쌓아 방어해야할 적이 감소했기 때문에 그들과의 경계를 표시하는 흙언덕 정도면 충분한 기능을 할 수 있었다. 이렇게 해서 유조변이 탄생하였다.

청대 유조변은 금나라 시대의 邊壕와 비슷한 형태로 땅을 파 호를 만들고 파낸 흙으로 언덕을 만들어 놓은 형태인데 계호와 좀 다른 것은 주위에 버드나무를 심었다는 것이다.³⁸⁾ 이 때문에 유조변이라는 이름이 생겨났다. 유조변의 성격을 둘러싸고 국가 간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는데 단순한 지역

38) 중국에는 邊壕에 대한 다양한 견해가 있지만 만리장성으로 포함시키는 견해도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장성의 개념이 선으로 연결되는 것 이외에 점과 점으로 구성된 방어진도 장성의 범주에 넣는 등 장성 개념이 변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버드나무를 심은 것은 흙 언덕의 유실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 유조변은 형태와 기능에서 遼·금 시대 변경에 설치한 ‘邊壕’의 연속이라고 보는 것이 학계의 일반적인 견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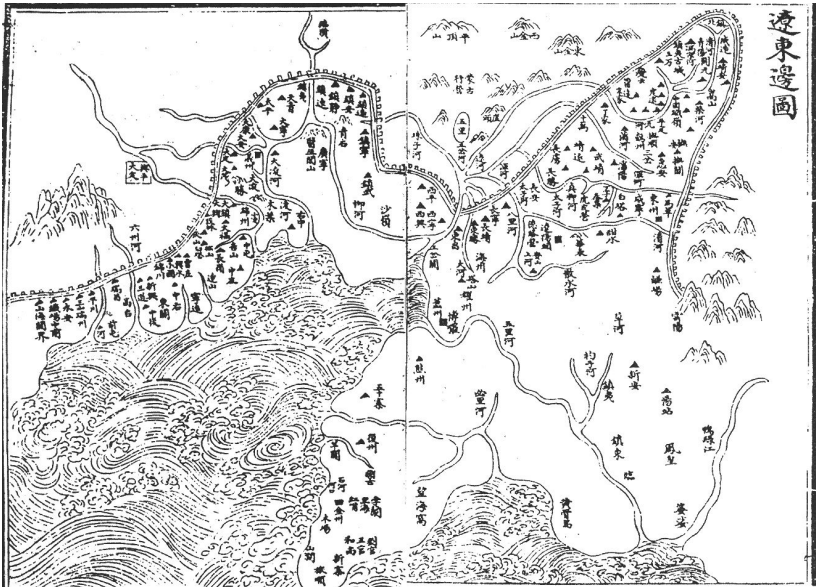
사이의 경계선이라는 중국의 주장과, 국경선이라는 러시아와 의견 대립을 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³⁹⁾ 실제로 중국은 유조변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흑룡강 유역도 누르하치가 17세기 원정을 통해 모두 그 곳의 종족



〈그림 6〉 명대 요동도사 관할지역과 역참분포도(楊正泰, 『明代驛站考』, 上海古籍, 2006)
 명대 요동도사 관할지역은 청대 유조변과 비교해 보면 더 좁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그만큼 요동도사는 팽창하기 힘들었으며 오히려 몽고와 여진에게 압력을 받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39) 柳條邊을 연구한 최근의 성과로는 施立學의 「東北柳條邊的封禁及對東邊道生態文化的影響」(『東北史地』, 2007年 第3期)과 「柳條邊伊通邊門」(『滿族研究』, 2006年 第1期), 張杰의 「柳條邊, 印票與清朝東北封禁新論」(『中國邊疆史地研究』, 1999年, 第1期), 「清代柳條邊對東北地區生態環境的作用及影響」(『史學集刊』, 2010, 第6期), 「清代的柳條邊」(『蘭臺世界』, 1999, 4)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성과들의 공통점은 흑룡강 지역이 청대의 강역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

들을 청건국의 주인인 만주인으로 편입한 것으로 주장하며 그 지역과 민족 모두를 청의 강역 속에 넣고 있다. 반면 러시아는 이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함으로써 흑룡강 유역을 비롯한 봉금지대 상당부분의 토지와 여진부족이 청조의 영향력 밖에 있었다고 주장함으로써 중국과 첨예한 논쟁을 벌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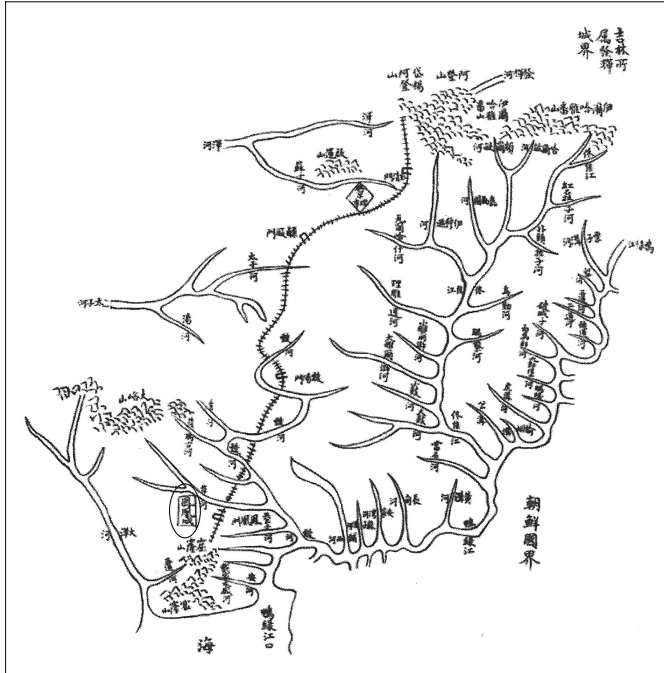


〈그림 7〉 『明代輿圖綜錄』 참조

명대 요동변장을 표시한 것으로 대명여지도와 마찬가지로 압록강으로 연결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유조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두만강 유역과 압록강 유역은 어떻게 조선과 청의 국경선을 정할 것인가. 백두산정계비 설치 이후에는 형식적으로 ‘東爲土門，西爲鴨綠’으로 경계의 기준을 정한다고 하더라도 정계비 이전의 압록강과 두만강 유역에서는 명대와 마찬가지로 수많은 越境사건이 발생하였다. 명대와 마찬가지로 청대 압록강과 두만강은 명확한 양국의 국경선이 될 수 없었던 것이다. 이것은 유조변 이외에 청나라가 설정한 봉금

지대의 성격을 파악해야 하는 과제를 남기도 있다. 나아가 만리장성 연장론과 관련하여 유조변의 형성과정과 그 성격을 밝히는 것에 초점을 두어야 할 필요성도 제기하고 있다.



〈그림 8〉 盛京奉天府轄區 東南府圖
(출처 : 『황여전도』 초본, 인용서 : 오령성도서관편, 성경풍물, 중국인민대학출판사, 2007)
유조변이 봉황성에서 멈추고 압록강으로 연결되지 않음을 표시하고 있다.

6. 結 論

한국에는 변경과 관련된 많은 고지도집들이 있다. 압록강과 두만강 유역이 비교적 상세하게 그려져 있고, 이 지역의 물길, 산세, 군사시설 그리고

여진지역을 상세하게 그린 지도들도 상당수 있다. 이러한 지도들은 여진지역과 조선과의 관계, 영토, 국경 등을 연구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밝힐 수 있었던 것을 몇 가지로 정리해 보고자 한다. 우선 조선시대 고지도에 여진지역이 비교적 상세하게 묘사된 것을 알 수 있었다. 연산관이 지도에 자주 표시된 것을 볼 수 있는데, 연산관은 1480년대 이전 명나라로 들어가는 책문이 설치된 지역이다. 후에 책문이 봉황성으로 이전되지만 고지도에 연산관이 자주 표시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책문은 상대 국가 영향력이 미치는 지역으로 들어가는 일종의 국경출입문과 같은 것이다. 1480년대 이전에는 연산관 책문을 통과해야 요동도사의 치소인 遼陽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조선초기에는 압록강에서 연산관에 이르는 180여리가 조선과 명의 국경지대로 설정되어 연산관은 조선인들의 관념 속에 남다른 지역으로 각인되었다. 실제로 연산관에서 봉황성으로 책문이 옮겨오는 과정은 명이 여진을 견제하고 조선의 사신을 보호한다는 명분하에 1480년대에 거의 군사적으로 선점해 들어왔기 때문에 조선의 입장에서 보면 명나라가 이후 압록강으로 점차 군사기지를 옮겨 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것은 조선의 입장에서 보면 명으로 들어가는 책문은 봉황성보다 사행의 중요한 경로인 연산관에 설치되기를 바라고 있었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빈번하게 지도에 연산관을 표시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지도를 통해 1480년대 이전에는 연산관~압록강, 1480년 이후는 봉황성~압록강 지역은 국경지대가 되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두 번째로, 고지도에 압록강 변의 섬들이 비교적 상세하게 표시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것은 압록강을 조선이 관할하고 있었고 명초부터 압록강의 섬들은 대부분 조선인들이 정부의 허락을 받아 경작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 명나라 사람들은 연산관이나 봉황성을 지나야 압록강에 다다를 수 있었고, 월경을 금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압록강 변의 도서에 함부로 올 수 없었다. 훗날 명나라가 책문을 봉황성으로 옮겨 온 이후 여진방어를 위

해 봉황성을 넘어 압록강 변으로 정보를 수축하였고 명에 소속된 요동사람들이 요동도사의 목인 하에 압록강 변으로 이주하기 시작하면서 조선의 또 다른 문제가 되었다. 이후 압록강 변 도서에도 월경한 요동인들이 출몰하는 등 조선의 입장에서는 압록강 두만강 변의 섬들을 경제적, 군사적, 정치적 이유에서 자세히 기록해야만 했다.

여진지역을 상세하게 그린 고지도가 많이 나타나는 것은 명대의 경우 조선의 군사가 강을 건너 여진을 수차례 정벌하고 그들의 침입을 저지시키기 위해 군사용 목적을 수시로 설치했기 때문이다. 또한 조선인들 역시 몰래 월경하여 산삼 등 특산물을 채집하여 밀거래하며 이익을 챙기는 사람들이 많아서 조선은 항시 그 대안지역에 많은 관심을 두어야 했다. 이러한 상황으로 조선이 그린 고지도에는 여진지역을 잘 표현한 지도들이 많이 있고 압록강 변의 초소를 비교적 정확하게 그린 지도들도 다수 나타나고 있다. 특히 조선후기의 지도들에는 길림과 영고탑 등이 정확하게 채색되고 있다. 이것은 길림과 영고탑은 청대에 흑룡강으로 진출하기 위한 군사기지와 같은 곳이었다. 이를 위해 청나라는 항시 이곳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4군과 6진의 문제를 언급할 수 있다. 고지도에는 4군과 6진 지역에 조선의 군사초소들이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세종이 4군과 6진을 설치한 것은 이들 지역이 군사적인 거점으로 적합하기도 했지만 4군과 6진 대안 지역에 여진인들이 촌락을 이루며 인구를 증가시키고 있었기 때문이다. 여진인들을 명대에 들어오면서 그들 지역에 풍부한 산삼, 포피 등의 특산물을 생산했고 이들 생산물들은 조선과 명의 왕실과 귀족들이 고가로 구입하기를 희망하는 것들이었다. 이것은 결국 마시에서 최고의 상품으로 가치를 발휘했고 여진은 교역을 통해 그들이 희망하던 소, 농구 등을 수입하며 점진적으로 농업사회로 진입하기 시작하였다. 농업사회로 진입한 여진인들은 비옥한 토지를 찾아 이동하기 시작하였고 이러한 이동은 자연스럽게 조선의 변경 살기 좋은 곳으로 밀려올 수밖에 없었다. 4군과 6진 지역으로 여진족이 밀려들게 된 것은 조선과의 접촉이 용이하다는 것 이외에

그들이 농업사회로 접어들면서 토지를 찾게 된 것과는 관계가 있다. 고지도를 통해 보면 4군과 6진 지역에 여진부락은 표시되어 있지 않지만 실록을 검색해보면 4군과 6진 부근의 땅이 비옥하여 여진인들이 큰 부락을 이루고 농업위주의 정착생활을 하고 있음이 나타나고 있다.

마지막으로 요동변장과 유조변의 문제이다. 고지도에는 명대 요동변장과 유조변의 형태가 자세하게 그려지고 있는데, 본고에서는 이들 형태가 압록강으로 연결되지 않는 것에 초점을 두었다. 현재 중국은 만리장성 동단기점을 압록강으로 정해놓고 있다. 이것은 명대 요동변장이 만리장성이며 압록강으로 연결되었고 명이 영향력을 압록강에 발휘하여 명의 강역으로 삼았다는 주장에 근거하고 있다. 그러나 명청시대 고지도에 나타난 요동변장과 유조변은 모두 압록강으로 연결되고 있지 않다. 이것을 기본적으로 현대 중국이 주장하는 명청대의 국경선이 압록강이 될 수 없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나아가 명대 형성된 국경중립지대 즉 동팔참 지대가 청대까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참고문헌

- 국립중앙박물관, 2007, 『조선도』.
- 범우사, 1991, 『Old Maps of Korea』.
- 서울대학교, 1995, 『海東地圖』上·下.
- 서울대학교 규장각, 2006, 『조선지도』.
- 영남대학교박물관, 1998, 『한국의 옛지도』.
- 金宣旼, 2011, 「擁正-嘉靖年間 莽牛哨 事件과 淸-朝鮮 國境地帶」 『中國史研究』제71집.
- 南義鉉, 2009, 「중국의 명대 동북강역 연구성과와 문제점 분석」, 『인문과학연구』제 22집, 강원대 인문과학연구소.
- 柳在春, 2001, 「15세기 명의 동팔참 지역 점거와 조선의 대응」, 『조선시대사학보』제 18집, 조선시대사학회.
- 정혜중, 2006, 「광서연간(1875~1908) 동북관리와 1907년 동삼성 설치 -동북봉금지대의 내지화-」, 『중국학보』제54집, 중국학회.
- 한성주, 2010, 「조선전기 두만강유역 女眞 ‘藩籬·藩胡’의 형성과 성격」, 『한국사학보』제41호, 고려사학회.
- 景愛, 2006, 『中國長城史』, 上海人民出版社.
- 佟冬 主編, 1998, 『中國東北史』 4, 吉林文史出版社.
- 林榮貴 主編, 2007, 『中國古代疆域史』 下卷, 黑龍江教育出版社.
- 施立學, 2007, 「東北柳條邊的封禁及對東邊道生態文化的影響」, 『東北史地』.
- 楊賓, 『柳邊紀略』(遼海叢書本)
- 張杰, 1994, 「清代鴨綠江流域的封禁與開發」, 『中國邊疆史地研究』.
- 趙英蘭, 2008, 「有關清代東北地區的幾個問題」, 『理論學刊』.
- 趙慧勇, 2007, 「試論清代順治道光年間東北封禁政策之演變」, 『大慶社會科學』.
- Edmonds, Richard Louis (December 1979), "The Willow Palisade", *Annals of the Association of American Geographers* 69 (4) : 599-621.
- Edmonds, Richard Louis (1985), *Northern Frontiers of Qing China and Tokugawa Japan : A Comparative Study of Frontier Policy*, University of Chicago, Department of Geography; Research Paper No. 213, ISBN 0-89065-118-3.
- Elliott, Mark C. "The Limits of Tartary: Manchuria in Imperial and National Geographies." *Journal of Asian Studies* 59, no. 3 (2000) : 603-46.

■中文概要■

通過古地圖看15~17世紀邊境地帶

南義鉉

古地圖對歷史研究有很重要的價值。韓國古地圖里比較詳細記載着鴨綠江、豆滿江流域和女真地區，還有很多地圖詳細記載這些地區的水勢、山勢、軍事設施和女真地區。這些地圖研究韓國史邊境、韓國史和北方史研究起非常重要的作用，研究女真地區的動向、朝鮮和女真關係、國土、國境等研究提供很重要的資料。

通過朝鮮地區古地圖可以確認幾項歷史性問題。首先，看柵門和連山關，1480年前去明朝的柵門設置在連山關，1480年以後柵門設置在鳳凰城。這倆地方是柵門設置的地方，又是必經的使行路，對朝鮮來說是一個歷史性的地方。可以說從鳳凰城到鴨綠江地區是朝明兩國的緩沖地帶，朝明兩國沒有邊境線。

其二，古地圖詳細標志着鴨綠江邊的很多小島，這說明鴨綠江是朝鮮的管轄地區，就明初開始鴨綠江的島嶼經朝鮮政府允許由朝鮮人來管理耕作。

詳細記載女真地區的古地圖來說，朝鮮軍隊時常過江征伐女真，還設置木柵防止女真入侵。還有一些朝鮮人越境採集人參等特產，暗地里交易并取得利益，使朝鮮政府不得不關注這些地區。

韓國古地圖里也詳細記載着四郡六鎮，從史料中分析到世宗看到江北一帶女真部落的增加并威脅朝鮮邊境，所以設置四郡六鎮的目的就是為了建立軍事地區。女真人進入農耕社會以後，漸漸移居到邊境地區，尋找土地肥沃的地方，這樣的移居自然而然擁到四郡六鎮。這說明女真需要跟朝鮮人交易，并尋找肥沃土地有關係。

最後看一下遼東邊疆和柳條邊的問題。現在中國把萬里長城的東端看到鴨綠江，但從古地圖里看不到遼東邊疆和柳條邊跟鴨綠江的聯繫。這說明現代中國所主張的鴨綠江不能成為明清兩國跟朝鮮的邊境線。

關鍵詞：古地圖，鴨綠江，豆滿江，燕山觀，國境，邊境，柳條邊，柵門